

2013

2013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대한건설협회가 시멘트·레미콘·철강재·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2013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2013년도 건설 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등으로 토목수주가 다소 증가하겠으나, 지방의 주택수주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건설수주는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 건설자재 수요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레미콘 수요량은 1억979만^m으로 전년도에 비해 4.9%하락하고, 시멘트 수요량도 4,430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5%로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2012년 시멘트 수급 실적

건설투자 증가 및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슬래그(Slag), 플라이 애시(Fly Ash) 등 시멘트 대체제의 공급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시멘트 내수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하반기부터 건설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2012년 상반기 중 시멘트 내수는 6.1%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건설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하반기 시멘트 내수는 7.7%나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4,41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수출도 대폭 감소하였다. 즉 국내 수요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수출대상국 다변화,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수출 증진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수출업체의 생산차질과 세계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로 수출은 전년대비 26.9%나 감소한 328만톤(클링커 570만톤 제외)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멘트 수급실적을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국내 수요 및 시멘트 수출량 감소의

여파로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2.4% 줄어든 4,710만톤이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 국내 출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 여건 개선에 따라 전년보다 5.4% 늘어난 72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의 2012년 수급실적 및 2013년 수급전망

(단위: 천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수요	내수	44,601	22,581	21,519	44,100	98.9	21,200	23,100	44,300	100.5
	수출	4,484 (5,481)	1,617 (3,081)	1,663 (2,619)	3,280 (5,700)	73.1 (104.0)	1,700 (2,500)	1,860 (2,660)	3,560 (5,160)	108.5 (90.5)
	계	49,085	24,198	23,182	47,380	96.5	22,900	24,960	47,860	101.0
공급	생산	48,249	23,929	23,171	47,100	97.6	22,900	24,300	47,200	100.2
	수입	683	369	351	720	105.4	360	370	730	101.4
	계	48,932	24,298	23,522	47,820	97.7	23,260	24,670	47,930	100.2
재고	1,268	-	-	1,500	118.3	-	-	1,400	93.3	

주: 12월은 추정, 수출은 () 안의 클링커 수출 제외

2013년 시멘트 수급 전망

세계 경제 불투명에 따른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는 건설투자 확대(2.0% 증가, 6개 연구기관 평균치 적용)와 정부의 SOC 투자예산 확대(3.6% 증가, 4대강 제외 시 5.1% 증가)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멘트 수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공급 여건 악화 속에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 주택공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청사의 이전과 신축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공공 비주거 건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의 건설 정책, 시장상황 등 정성적 여건을 감안한 2013년 시멘트 내수는 금년보다 소폭 증가한 4,43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관련해 2013년 세계경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13년 시멘트 수출은 전년대비 8.5% 늘어난 356만톤(클링커 516만톤 제외)이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 2013년도 시멘트생산은 국내 수요와 수출 여건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720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의 경우 여건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시멘트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73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레미콘

2012년 레미콘 수급 실적

2012년 레미콘 수급실적은 전년 121,109천m³ 대비 4.7% 감소한 115,460천m³를 출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레미콘 출하의 감소는 대내외 경제 불황에 따른 건축 및 토목 건설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에 나설 여력이 떨어졌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것도 레미콘 출하량이 감소한 원인이다.

레미콘의 2012년 수급실적 및 2013년 수급전망

(단위 : 천m³,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률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률
수도권	40,757	16,855	19,671	36,526	-10.4	15,844	18,490	34,334	-6.0
지방	79,273	36,571	42,362	78,934	-1.8	35,018	40,441	75,459	-4.4
전국	121,109	53,427	62,033	115,460	-4.7	50,862	58,931	109,793	-4.9

2013년 레미콘 수급전망

2011년 공공 부문이 크게 감소했던 것과는 달리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공공 부문 수주 증가율(6.6%)과 민간 부문 수주 증가율(5.0%)이 모두 증가하였고 2013년 정부 SOC예산(안)이 2012년보다 3.6% 증액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3년도에도 주택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기 어렵고 민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 레미콘 출하는 2012년 115,460천m³ 대비 4.9% 감소한 109,793천m³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재

철근

2012년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건축호조로 생산/내수 등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다. 2013년은 건설투자가 소폭 회복되고 총선·대선 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예상되나, 실질적인 건설경기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에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낮은 재고수준 및 주택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2012년 수준에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철근의 2012년 수급실적 및 2013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2013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수요	내수	8,609	9,274	7.7	9,530	2.8
	수출	637	344	-46.0	340	-1.2
	계	9,245	9,618	4.0	9,870	2.6
공급	생산	8,810	9,123	3.6	9,370	2.7
	수입	435	495	13.7	500	1.0
	계	9,245	9,618	4.0	9,870	2.6
재고	-	-	-	-	-	-

형강

2012년은 상반기 중 발전플랜트 등 산업설비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내수가 증가한 반면, 수출 감소 및 수입증가로 생산은 정체상태를 유지했다. 2013년은 건설경기 소폭 회복, 발전플랜트 등 정부 SOC투자, 공공기관 신축이전 등으로 2% 중반의 성장이 전망된다.

형강의 2012년 수급실적 및 2013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수요	내수	4,453	4,652	4.5	4,770	2.5
	수출	1,667	1,574	-5.5	1,600	1.6
	계	6,120	6,226	1.7	6,370	2.3
공급	생산	4,788	4,796	0.2	4,920	2.6
	수입	1,332	1,430	7.4	1,450	1.4
	계	1,332	1,430	7.4	1,450	1.4
재 고	-	-	-	-	-	-

강관

강관의 경우 2012년은 소비심리 위축 및 건설경기 정체 등으로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북미/중동 등의 유정용 수요호조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생산은 증가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소폭 회복 및 에너지용 중심의 수출호조로 내수/생산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력 수출국인 미국의 무역규제 우려 고조로 수출 감소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강관의 2012년 수급실적 및 2013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수요	내수	3,444	3,253	-5.5	3,360	3.3
	수출	2,401	2,782	15.9	2,815	1.2
	계	5,844	6,035	3.3	6,175	2.3
공급	생산	5,073	5,283	4.1	5,420	2.6
	수입	771	752	-2.5	755	0.4
	계	5,844	6,035	3.3	6,175	2.3
재 고	-	-	-	-	-	-

골재

2012년 골재 수급 동향

2012년 골재 수요는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수급 동향을 고려할 때, 1억9,544만㎡에 달하여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골재 수요는 5,547만㎡로 주

택경기 장기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였다.

골재의 공급 측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원활하였고 4대강 준설토의 적치장 감소로 대구·경남 등 일부 국지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인근지역 및 EEZ 물량 반입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2012년 골재 수요

(단위 : 천㎥, %)

구분	2011년			2012년(추정치)			2011년 대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192,837	94,682	98,155	195,411	95,958	99,483	1.4
수도권	67,073	32,932	34,141	55,472	27,236	29,236	-17.3
강 원	9,198	4,516	4,682	8,953	4,396	4,557	-2.7
충 북	9,793	4,808	4,985	10,258	5,036	5,222	4.7
충북권	24,070	11,818	12,252	24,807	12,180	12,627	3.0
전 북	11,306	5,551	5,755	10,630	5,219	5,411	-6.0
전남권	21,060	10,340	10,720	21,983	10,793	11,190	.4
경북권	22,763	11,177	11,586	20,974	10,298	10,676	-7.9
경남권	24,001	11,785	12,216	38,525	18,915	19,610	60.5
제 주	3,573	1,755	1,818	3,839	1,885	1,954	7.4

2013년 골재 수급 전망

2013년 건설투자 전망 측면을 고려할 때 골재의 수요는 전년도 수준인 2억117만³m³가 예상되며, 수도권보다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지방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골재의 공급은 수요를 고려하여 산림, 바다골재 등 허가물량 1억3,231만³m³ 및 4대강 준설토를 포함한 비허가 물량 8,648만³m³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 골재 수요 전망

(단위 : 천㎥, %)

구분	2012년(계획)			2013년(계획)			2012년 대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1,105	98,741	102,364	201,175	98,775	102,400	-
서울·경인	69,104	33,930	35,174	56,507	27,745	28,762	-18.2%
강 원	9,478	4,654	4,824	10,185	5,001	5,184	7.4%
충 북	10,093	4,955	5,138	10,383	5,098	5,285	2.8%
대전·충남	24,797	12,175	12,622	25,358	12,450	12,908	2.3%
전 북	11,643	5,716	5,927	10,782	5,294	5,488	-7.4%
광주·전남	18,688	9,176	9,512	22,365	10,981	11,384	19.6%
대구·경북	23,465	11,521	11,944	21,566	10,589	10,977	-8.1%
부산·경남	27,737	13,619	14,118	39,535	19,411	20,124	42.5%
제 주	6,100	2,995	3,105	4,494	2,206	2,288	-26.4%

주 : 2013년 수요는 국토해양부 2012년도 골재수급계획과의 비교이며, 한국은행 건설투자 전망치와 지역별 레미콘출하량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한 값임.

원심력 콘크리트

흙관

2012년에는 유럽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국내 건설업계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내수시장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값비싼 유수관보다 질적으로 전혀 뒤지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흙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2013년에는 미국의 재정절벽을 비롯한 유럽의 금융위기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계속 진행되어 시장의 성장과 회복을 이루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에도 두드러진 회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콘크리트관의 오수관 사용이 거의 없어 큰 폭의 매출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심력 콘크리트의 2012년 수급실적 및 2013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물품명	구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흙관	수요 (내수)	737,600	491,800	1,229,400	102.1	851,000	459,000	1,310,000	106.6
	공급 (생산)	813,100	542,000	1,355,100	113.2	970,000	530,000	1,500,000	110.7
파일	수요 (내수)	4,394,600	2,365,400	6,760,000	130.1	4,870,000	2,630,000	7,500,000	110.9
	공급 (생산)	4,446,000	2,395,000	6,841,000	131.3	5,000,000	2,800,000	7,800,000	114.0

파일

2012년 파일시장은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건설공사(아파트 건설공사)에서의 집중 발주로 인하여 PHC파일의 수요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부양 정책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아파트 등 건설공사에 대거 집중발주 되어 실적이 호전되었으며, 이에 2013년도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정부 출범에 따른 건축분야 건설경기 진작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